

다보스 포럼, 통상 이슈 해소와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아웃리치 전개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정부·기업 고위 관계자 50여회 면담 -
- 투자원활화협정(IFDA) 회의 주재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WEF) 주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이하 다보스 포럼)에 참석, 주요국 통상장관, 기업 최고경영자 및 글로벌 석학 등과 약 50여회 면담하고,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과 투자원활화협정(IFDA) 회의 주재 등을 통해 주요 통상 현안 해소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 다자 통상질서 복원 및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금번 다보스 포럼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인공지능, 핵심광물, 디지털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❶ 주요 정부 인사 면담 >

여 본부장은 미국 그리어(Greer) 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휘트머(Whitmer) 미시간 주지사, 뉴스섬(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베셔(Beshear) 켄터키 주지사, 쿤스(Coons)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셰프초비치(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과는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 관련 실효적 해법 도출을 위한 협의진행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시두(Sidhu) 캐나다 통상장관과도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수입규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였다. 프랑스 포리시에(Forissier) 통상 특임장관 및 스위스 부들리거 아르티에다(Budliger Artieda) 경제담당 국무장관과는 그린란드 등 관련 EU의 대미

통상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였으며, 이스라엘 바르카트(Barkat) 경제산업부장관과도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주요국과 진행 중인 FTA 가속화 등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걸프협력회의(GCC) 알부다이위(AlBudaiwi) 사무총장 및 마지드(Majid) 사우디아라비아 통상장관과는 GCC FTA 서명, 태국 시하삭(Sihasak) 외교장관 및 수파지(Suphajee) 상무장관과는 한-태국 FTA 협상 가속화, 이집트 엘카티브(El-Khatib) 투자통상부 장관과는 한-이집트 CEPA 협상 개시, 몽골 잔당샤타르(Zandanshatar) 총리와는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글라데시 시디키(Siddiqi) 총리 특사와는 한-방글라데시 FTA 가속화, 아르헨티나 브룬(Brun) 차관과는 한-메르코수르 TA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중국 리청강(Li Chenggang)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와는 금주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인도네시아 누홀 이흐완(Nurul Ichwan) 투자부 차관, 캄보디아 시파나(Siphana) 다자통상 선임 특보 등과도 기체결 FTA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 ② 기업인사·전문가 면담 및 주요 세션 참석 >

또한, 머크(Merck), 애플(Apple), 오스테드(Ørsted),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코카콜라(Coca-Cola), 아마존웹서비스(AWS), 머스크(Maersk), 트라피구라(Trafigura) 등 주요 외투기업 최고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AI 등 신산업 육성정책과 외투기업 지원의지를 설명하고, 우수한 연구 역량과 제조 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개별 외투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 본부장은 반도체·AI·국제관계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와는 미국 반도체 232조 및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을 논의하고, AI 분야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대 교수와는 우리나라의 AI 활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 확대 정책(M.AX)을 소개하고, 한국 AI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였다.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 그룹 회장과는美中 관계를 포함한 국제 정세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외에도 여 본부장은 무역원활화 등 전통적 의제를 포함하여 AI, 핵심 광물 공급망, 신흥국 협력 등과 관련하여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된 다양한 세션에서 주요 발언자로 나서 AI, 디지털, 공급망 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의지를 공유하였다.

< ③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참석 및 투자원활화 협정 회의 주제 >

한편, 여 본부장은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차원에서 스위스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1.22)에 참석하여 미국·EU·중국·일본 등 20여개국 장관들과 ①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IFD, 이하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간 협정의 WTO 편입 및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 금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이하 MC-14) 성과 창출 방안과 ②WTO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다가오는 MC-14가 WTO에 대한 신뢰와 적실성을 검증할 시험대인 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규범 제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역설하고, 우리측이 주도한 투자원활화 협정이 WTO 체제 하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투자원활화 협정 지지국 장관들과 조찬회의를 주재하고, 동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아웃리치 전략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이 다자무역체제의 수혜자로 MC-14에서 조정자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향후 WTO 개혁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활동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대화와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며, “당면 통상현안에 대해서 주요국과 지속 공조하는 한편, 주요 외투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투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WTO 개혁과 AI·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확립 등 다자질서 복원을 위한 규범 제정자(rule-setter)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송승희 (044-203-5626)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3-5664)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파라 (044-203-5920)
		담당자	사무관	박상희 (044-203-5923)